

2003년 약용작물 주요정책방향에 대해 듣는다! - 농림부 채소특작과 이기식 과장

“차별화된 고품질 약용작물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

GAP 제도 추진배경 안전성 확보, 유통차별화 차원

생약생산농가들은 지금 정부의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방안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올부터 시행에 들어갈 GAP제도(우수약용작물재배관리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AP제도 시행 취지와 개략적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림부는 '02. 9월 관련기관 단체와 함께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 대책에는 우수한 국산 약용작물 개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유통체계 정비를 통하여 약용작물재배농가가 고품질의 약용작물을 차별화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반조성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약용작물재배 관리(GAP)방안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을 통하여 재배농가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약용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와 연계된 생산자단체 계열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활동 제한 아닌 경쟁력 제고의 좋은 기회

GAP제도시행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매우 적절한 정책 시행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GAP제도시행이 자칫 생약 생산 농가의 생산활동을 제한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01.11.27. 세계보건기구(WHO) 한약(생약)국제규격화 포럼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천연약물의 규격화 및 각국의 규정에 대한 통일화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되는 가운데 중국이 중약재(원료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을 정하여 '02.6.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국의 생약산업을 지키는 필수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우수약용작물재배 관리(GAP)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토양, 수질, 농약 등 관한 사항으로 이미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산농민들의 생산활동에 제한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생약이외에 다른 농작물에 대하여도



이러한 제도가 폭넓게 적용될 것입니다.

GAP 준수 약용작물 차별화 방안 검토중

GAP제도 성공적 정착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GAP규정 준수 약용작물'에 대한 차별화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부여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GAP제도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이 설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 기준은 생산농가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 덕목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화 노력은 생산자의 몫이며,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GAP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GAP를 준수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유기적인 관리를 통해 제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산지도·수매·브랜드와 통한 주도적 판로개척 필요

약용작물 GAP 제도가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데요 제도시행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의 역할 또는 생산농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자농민이 GAP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농산물을 흡수하여 보증하고 브랜드화하여 잘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도·농산물구매·보증·브랜드·판로개척을 주도적으로 해야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농업인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GAP제도시행 외에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3년 주요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소비자 요구에 부합되는 약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우수약용작물 품종육성 강화, 외국산과 차별화된 고기능성·품종, 생명공학 기술접목에 의한 특수성분 강화품종, 친환경, 재해저항성 품종 육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 유전자원 수집·관리규정 제도화 및 국내자생자원 정보의 D/B화, 약용작물 수요확대를 위한 기능성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셋째는 한약재 유통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약재 유통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감은 물론 원산지 표시 및 단속강화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산약용작물 친환경인증 확대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의 다양화 및 소비자에 한발 다가서는 효과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회 추진중인 브랜드사업 GAP 제도와 접목 정착되기를

우리협회가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브랜드화 사업도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차원이라는 측면에서 GAP 제도 시행취지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협회 브랜드사업에 대해서도 한마디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브랜드화사업은 매우 바람직하고 GAP 제도와 잘 접목하여 국산 대표브랜드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11월경에 있을 우수한 약재전시행사에 한약재대표브랜드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약용작물경쟁력제고를 위해 많은 자문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한국생약협회 회장님과 임원 그리고 생산회원등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문정희)

약용작물의 생산 취급과정에서 위해와 오염을 차단하여 고품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안)이 최종 마련됐다.

최근 농림부는 약용작물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의회를 통해 검토해 온 우수약용작물재배관리(안)을 최종 마련하고 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 지침은 약용작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약용작물의 파종·재배에서부터 수확 및 수확 후 가공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재배관리(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해당작물의 특성 및 재배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비료종류, 시비량, 시비시기를 조절하되 급적 유기질비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제초 및 살초제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살균제·살충제의 사용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만큼 최소화하되 사용 시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재배관리(안)은 또 수확시기도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상의 품질이 확보되는 시기를 택해서 할 것과

손상되거나 고사한 생산물은 수확과정에서 선별, 제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확 후 품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자연건조 시 급적 그늘에서 건조하고, 연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열원으로 건조하지 말 것과 자연건조 외에는 원료의 종류(뿌리, 줄기, 잎, 꽃등)와 성분의 함량을 고려하여 급적 60°C이하의 조건으로 건조하되 건조조건은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가된 물질만 사용해야 하며 면허가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 지침에 따르면 오염원인을 규명하거나 차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리자는 △화명, 한약명, 파종·수확·수확후 관리날짜 △농약, 비료 등의 사용내역 △훈증제 등 생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가공과 공정 △경작에서 소비자까지 농산물을 취급한 사람(또는 업체) △포장재의 수량과 재고량 등을 기록하고, 기록사항을 1년 이상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관련기관 단체간 최종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수약용작물재배관리(GAP)안 최종 마련